

연예뉴스 HOT 3

트와이스, 열두번째 미니음반 '빌보드 200' 2위

결그룹 트와이스의 열두 번째 미니음반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2위에 올랐다. 20일(한국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트와이스가 10일 발표한 '레디 투 비'가 미국에서 15만3000장의 판매고를 올려 '빌보드 200'에서 2위로 진입했다. 이로써 트와이스는 정규 3집 '포틀러 오브 러브: O+T=3'와 열한 번째 미니음반 '비트윈 원앤투'로 세운 '빌보드 200' 3위를 넘어 자체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24일 경찰 출석 예정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37)이 24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4일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유아인의 자택과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원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남주혁 입대...5주후 군사경찰단 기동대 복무

배우 남주혁(29)이 입대했다. 20일 소속사 매니지먼트에 따르면 남주혁은 이날 육군훈련소에 입소했고,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 이후 군사경찰단 기동대 소속으로 군 복무를 시작한다. 2013년 모델로 데뷔한 남주혁은 이듬해 tvN 드라마 '잉여공주'에 출연하며 안방극장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어 tvN '치즈인더트랩', MBC '역도요정 김복주', JTBC '눈이 부시게', tvN '스타트업', '스물다섯 스물하나' 등을 주연했다. 최근 촬영을 마친 디즈니+ '비질란테' 공개를 앞두고 있다.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9@donga.com

개그맨 아닌 영화감독으로... '응답이' 연출 박성광과 그의 첫 주연 맡은 박성웅

박성광(42)이 개그맨이 아닌 영화감독으로서 코미디 영화 '응답이'를 스크린에 선보인다. 22일 개봉하는 영화는 앞서 세 편의 단편영화를 선보였던 박성광의 피, 땀, 눈물로 완성한 첫 장편이다. 그는 영화를 연출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와 탈장, 피부염까지 겪었다. "꿈의 실현"이라고 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 첫 장편영화의 얼굴로 배우 박성웅(50)이 나섰다. "박성웅이 출연을 거절했다면 '응답이'라는 영화 자체를 포기했을 것"이라는 박성광의 말에 박성웅은 "나를 염두에 두고 쓴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도망갈 곳이 없었다"며 웃었다.

“개그맨 편견 힘들었지만  
어릴적 꿈 이뤄 행복해요”

박성광 영화감독

단군신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는 100일간 썩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쌍둥이 형제 이야기다. 최근 열린 시사회에서 나온 영화의 호불호 평가에 대해 박성광 감독은 "모든 분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걸 알지만 '개그맨 출신'에 대한 편견만은 없길 바란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개그맨이라는 이유로 투자받기도 쉽지 않았어요. 투자하기로 했다기 철화하는 경우도 있었죠. 울기도 많이 했어요. 이름을 숨겨야 하나 고민했지만 개그맨이란 제 직업에 자부심이 있기에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영화연출을 전공한 후 단편 '슬프지 않아서 슬픈'으로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까지 했지만 "정통 영화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냉대하는 시선을 웃으며 느껴야 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격지심도 생겼지만 오랜 꿈을 포기할 순 없었다.

그는 어릴 때 '영구와 팽이', '우리매'를 보며 감독과 개그맨을 꿈꿔왔다. 하지만 그가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영구와 팽이' 같은 거 만들려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 그때마다 상처로 돌아왔다. 그는 "그게 왜? 어때서?"라고 되묻고 싶었다. 그 말 자체가 선임견이고 편견이라고 했다.

개그맨 출신이지만 앞서 서정적인



박성광 감독은 "개그맨 출신이란 선임견 없이 영화를 봐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 | 응답이문화산업전문회사·CJ CGV

멜로 장르의 단편을 만들 때보다 코미디 영화를 만드는 게 더 어려웠다. "직접 웃기는 것과 웃기는 연기의 디렉팅을 하는 건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어려운 길이지만 앞으로도 영화를 놓지 않는 것이 목표다. 개그맨을 주인공으로 한 차기작도 준비하고 있다.

"연기를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즐거움과는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 영화를 시작했어요. 결국 개그맨으로서 감독으로서 제 목표는 같은 거예요. 무대에서 희극 연기를 통해서만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화를 통한 즐거움도 기대해주세요."

이승미 기자 smilee@donga.com

“12년전 술자리서 한 약속  
진짜 출연 제의해 놀랐죠”

배우 박성웅

박성웅은 "박성광 감독의 첫 연출작 출연을 결정하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솔직히 말했다. 박 감독에게 2년 전 건네받은 첫 대본에 '구멍'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구멍들을 박 감독과 함께 채워가고 싶었다.

"처음 대본을 받을 때 '감독 박성광'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과거 술자리에서 '제가 영화의 시나리오를 꼭 드리겠다'고 말한 뒤 12년 만에 진짜 출연 제의를 해온 성광이의 패기를 믿었죠."

첫 연출작에 대한 의구심은 있었지만 '개그맨 출신 감독'에 대한 편견은 전혀 없었다.

"그 누구에게도 출신 같은 걸로 편견을 가지지 않습니다. 특히 개그맨에게는요. 수년전 '맹구'로 유명한 개그맨 이창훈 선배님을 뵈 적이 있는데 카리스마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정말 멋있어요."

그는 카메라도 섭외도 직접 나섰다. 영화 말미 등장하는 정우성은 박성웅의 "인맥의 결과"다. "처음에 성광이가 마동석 형을 카메라로 부탁했는데 촬영 일정이 맞지 않았어요. 우성 씨에게도 부탁하고 싶었는데 당시 우성 씨가 워낙 바빠서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성 씨가 다른 사람에게 상황을 전해 듣고는 먼저 연락이 와서 하겠다고 하더라



박성웅은 "1인 2역을 위해 친형을 대역 연기자로 동원했다"며 웃었다. 사진제공 | 응답이문화산업전문회사·CJ CGV

고요. 성광이랑 만세를 외쳤다니깐요." 극중 박성웅은 1인 2역을 맡아 응남이와 응북이를 모두 연기했다. 키와 외모가 비슷한 친형이 응북이를 연기했다. 그의 형은 현재 캐스팅 디렉터로 일하고 있다.

"180cm가 넘는 저와 비슷한 대역 연기자를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저보다 키가 큰 형이 딱 맞았 싶었죠. 수중 촬영 같은 건 제가 다 했죠. 자꾸 몸이 물에 떠서 옷에 4kg나 되는 납을 넣고 촬영했어요. 전 모든 작품을 사활을 걸고 하거든요. 그래도 다시는 수중촬영은 못 할 거 같아요. 너무 힘들거든요. 하하."

이승미 기자



가수 세빈과 배우 이다해가 5월 6일 백년가약을 맺는다. 사진출처 | 이다해 SNS 캡처

‘8년 열애’ 세빈·이다해 “우리 결혼해요”

5월 6일 서울 모처서 비공개 결혼식

"아직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호칭이 익숙하지만 이제 부부가 되기로..."

8년째 공개 열애 중인 동갑내기 가수 세빈(최동욱·39)과 배우 이다해(변다혜)가

5월 6일 결혼한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린다.

세빈과 이다해의 소속사 관계자는 20일 "워낙 오랫동안 연애를 해왔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책임감 있게 살아가고 싶었다고 하더라. 그런 모습이 그동안 응원해준 팬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의 웨딩 화보를 공개했다.

세빈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8년이란 시간 동안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부족한 저를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준 여자친구 이다해 씨와 결혼을 약속했다"며 "앞으로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남편으로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자필로 쓴 편지를 올렸다.

이다해 역시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애를 해온 저희라서 어쩌면 크게 놀라울 일

이 아닐 수도 있을 텐데, 뭐가 이리 쑥스러 운지 어떻게 말씀드릴지 혼자 고민이 많았던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다가오는 5월, 저희가 오래된 연인에서 이제 부부가 되기로 약속했다. 그동안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며 큰 행복을 준, 이제는 제 평생의 반역자가 될 그분에게도 좋은 아내로서 더욱 배려하며 큰 힘이 되는 존재로 살겠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귀두확대 시술로 조루증 치료!!

주사로 귀두확대와 동시에 음경확대 가능!



비뇨기과 전문의 최중근 원장

10분 정도의 간편한 시술!!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브이맨비뇨기과 최중근 원장은 다년간 조루증 치료에 전념하여 오랜 해외 활동으로 얻은 경험과 학식으로 조루증 치료에는 귀두의 감각을 둔화시키는 귀두확대가 큰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이용하여 귀두와 음경에 히알론산을 주입하는 확대술이 효과적이다.

이것이 바로 비수술적확대법이며 이는 주사로 간단하게 필러를 음경과 귀두에 주입하여 확대시키는 간편한 시술법이다.

이 시술법은 음경과 귀두가 확대



되는 효과와 동시에 귀두의 감각이 둔해지는 현상이 있어 사정이 지연되어 조루증에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석이조의 시술법이다. 부작용으로는 약한 염증이나 일부 흡수가 될 수 있다.

- ▶국소마취로 시술시간은 10분! ▶시술 후 술, 샤워는 당일부터 가능!
- ▶성관계는 일주일 후부터 가능! ▶시술 당일부터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

www.vmanclinic.com 02)3469-1900 강남역1번출구 바로앞

벌떡궁! 남성(性)해결!

발명특허

"살맛 나네~ 살맛 나~"

고개숙인 남성이 살아났네!

발기유지 않되면 무조건 환불함!

- 혈류장애로 시들하고 자신없는분
- 중간에 시들거나 빠른분 30분 지속
- 고령이나 발기불능인분도 30분 지속
- 음경이 왜소한분 확대되어 커짐

40대부터 70~80대까지 효과만점

- ★ 국내 단 하나! 효과 탁월!
- ★ 완전 자동!!
- ★ 5초 이내 작동, 휴대 간편



※대리점 모집/타제품 보상판매 구입문의 1522-3383